

# ‘불확실성 파고 넘어라’... 보험업계, 상품 경쟁력 승부수

삼성화재, 업계 첫 비만보험 출시  
신담보 2종 등 배타적 사용권 획득  
흥국화재,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표적약물 허가치료제 신담보 개발

탄핵 정국으로 금융업계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상품 경쟁력에 집중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근본적인 보험 상품을 강화하면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업계 최초로 비만보험을 출시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화재는 이번달 ‘비만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치료비’와 ‘당뇨 GLP-1 급여치료비’ 신담보 2종을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사 상품 경쟁력 강화 이미지.

신보였다. 비만이 ‘질병’으로 분류되면서 비만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업계 최초로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해당 신담보 2종과 비만관리 서비스

(Fat To Fit)는 독창성을 인정 받아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해 11월 임산부·아기보험으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1년여

만이다.

삼성화재는 “비만과 관련된 질병의 유병률을 낮춰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비만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체계적인 보장을 위해 새로운 담보와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최경증·경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하는 표적약물 허가치료제를 신규 담보로 개발했다.

최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레캄비(레카네맵, Lecanemab)’이 등장하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표적 치매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치매 보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맞춤형 치매 치료 신담보를 선보였다.

손보험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담보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올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을 획득한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흥국화재 뿐이다.

흥국화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담보 개발로 신규 보장 영역을 개척했다”며 “최경증치매 치료제 담보 개발로 민영보험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도 치매보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기존 치매보험을 개정하면서 치매에 대한 보장 기간을 종신까지 확대한 상품을 출시했다.

특약을 통해 요양진단비, 요양생활자금, 재가급여, 시설입소급여를 보장한다. 특히 바로보장형 상품의 경우 재가급여 등 주요 특약을 면책 없이 가입 즉시 보장한다.

흥국생명은 “치매와 간병에 보다 폭넓은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자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초고령화 시대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DJSI 월드 지수 편입

삼성화재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

삼성화재는 글로벌 ESG 대표 평가 지표인 2024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DJSI)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월드(World) 지수에 편입됐다고 19일 밝혔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지표다. 세계적인 권위의 미국 S&P 다우존스사와 스위스 로베코샘사가 공동 개발한 글로벌 ESG 평가 지수로 월드 지수는 상위 10%인 250여개 기업만 편입된다.

삼성화재는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최상위 등급인 월드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글로벌 ESG 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신한라이프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

신한라이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제 운용, 가족돌봄 지원, 정시퇴근 문화 정착 등이며 서류 및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 임직원 인터뷰 등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신한라이프는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2027년까지 3년간 가족친화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김주형기자

# 잠잠한 저축은행 연말 특판... 유동성 확보 집중

저축은행, 예금·적금 금리 내리막  
신년 만기도래 중심 특판 가능성

연말이 다가왔지만 저축은행의 ‘연말 특판’이 잠잠하다. 저축은행이 최소한의 유동성만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분기 여신잔액이 소폭 증가했지만 수신 속도를 높일 단계는 아니란 입장이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금리는 연 3.38%다. 이번달에만 0.08%포인트(p) 하락했다. 그간 저축은행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연말, 연초에 특판 상품을 내놓던 것과 비교하면 소극한 행보다. 예금금리 상단은 연 3.61%로 연간 0.79%p 떨어졌다.

정기적금 금리도 내리막이다. 같은 날 기준 저축은행의 정기적금(1년물) 평균 금리는 연 3.45%다. 연간 0.12%p 하락했다. 통상 적금상품은 홍보 및 행

사성으로 출시한다. 정기예금 대비 높은 금리를 책정하며 상대적으로 평균 금리 하락 속도가 더디다. 적금금리가 떨어진 것은 저축은행이 자금 수선에 보수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미다.

한동안 연 4%대 정기예금은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대출 수요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시중 은행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저축은행 업황회복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을 중단한 만큼 리테일(소매금융)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저축은행은 2금융권의 대출 ‘풍선효과’도 일축했다. 저축은행이 개인 주택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는 데다 대출금리가 은행권 대비 연 5~6%p 가량 높은 만큼 수요가 전무하다는 것.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 인상과 저축은행 대출 수요 확대는 무관

하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높이는 배경에는 유동성 확보와 여신잔액 확대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PF 신규취급을 중단한 데다 리테일 수요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같은 정기예금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신년 특판 출시 가능성도 낮다고 내다봤다.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유동성만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올 3분기 전국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135.84%다. 직전 분기(231.79%) 대비 101.95%p 하락했다. 단 법정기준 100% 대비 35.84%p 초과한 수치다.

일각에서는 수신금리 인하에도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만기도래 시기가 상이한 만큼 연초 특판을 기대할 수 있단 의견이다. 저축은행은 만

기도래 2~3개월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만기가 1~2분기에 집중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예적금이 등장할 수 있다.

만기 기간 분산 또한 신년 특판 출시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현재 저축은행은 수신금리 인하나 만기 기간 분산에 적잖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22년 4분기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연 6%를 웃도는 정기예금을 연말에 출시하면서, 정기예금의 경우 중복 가입 빈도가 낮은 만큼 평균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각 사별 자금포트폴리오에 따라 신년 특판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이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이 고금리를 고수하는 만큼 급격한 금리 인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집값... 39주째 상승

이달 셋째 주 아파트값 0.01% ↑  
매매수급지수는 9주째 떨어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9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9주째 하락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오르면서 39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마포구(0.02%→0.02%)가 공덕·아현동, 성동구(0.02%→0.03%)는 금호·옥수동, 종로구(0.01%→0.04%)는 무악·송인동 주요 단지, 용산구(0.04%→0.04%)는 한강로3가·이촌동 주요단지, 광진구(0.07%→0.04%)는 광장·구의동 정주

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07%→0.06%)는 서초·반포동 주요단지, 강서구(0.03%→0.03%)가 등촌·염창동 역세권, 강남구(0.07%→0.04%)는 대치·개포동 대단지, 송파구(0.02%→0.04%)는 방이·송파동, 영등포구(0.04%→0.03%)는 신길·여의도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11월 전용면적 59㎡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매매가격(13억5000만원) 대비 2억원 상승했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선수기자촌2단지’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스1

83㎡가 22억원에 거래되면서, 1개월 만에 1억원 올랐다.

1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0으로 전주(98.6)보다 0.6포인트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 10월 셋째 주부터 9주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및 신축 등 선도단지에서는 매수문의 꾸준하고 상승거래 발생되고 있다”며 “다만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 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